

종루

근대 이전, 시계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대에 사원의 종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1 일을 12 로 나누는 중국의 전통적인 시간 재기 관행에 따라 사원의 종은 통상 2 시간마다 울렸습니다. 또한 종은 신년 축하, 축제 등의 특별한 날이나 화재 발생 등 위험을 알릴 필요가 있을 때도 울렸습니다.

엔고지 절의 종루는 경사진 사다리꼴 대좌 위에 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반신에 착용하는 일본의 전통 의상인 하카마를 입은 사람의 실루엣과 닮은 모습이어서 하카마즈쿠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좌 바로 위에 있는 맞물림 지지 구조로 된 기초는 실질적인 중량을 고르게 분산시켜 주위의 노대를 보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와 지붕 처마 밑에서도 같은 맞물림 지지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종루 안의 청동 종은 불교의 상징인 용과 연꽃 등의 문양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종에는 새겨져 있지 않으나 형식상의 특징은 1324 년경에 구조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효고현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일본에서도 가장 오래된 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루 자체는 대략 1332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더 오래된 시기의 구조로 재건되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루는 일본 중요문화재, 종은 효고현 문화재입니다.